

궁지 몰린 푸틴 핵버튼 누를까... 커지는 핵전쟁 공포

“60년전 쿠바 이후 긴장 최고조” 러, 우크라 4곳 병합 선언 이후 외신들 핵전쟁 가능성 잇단 보도

세계는 과연 60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냉전시대 핵전쟁의 긴장감에 직면하게 될까. 1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수세에 내몰리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판을 뒤집을 결정적 카드로 핵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쏟아냈다.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을 선언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선례를 언급, 전술핵 사용 의지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쿠바 미사일 위

기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비교하며 "무시무시했던 당시의 기억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서간 냉전이 한창이었던 1962년 9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같은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쿠바의 요청으로 미국 남서부 해안에서 매우 가까운 쿠바 본섬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첩보 사진이 미국 백악관에 전달됐고, 이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해군력으로 쿠바 해상을 봉쇄하면서 양측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당시 미국이 내부적으로 쿠바 침공까지 검토하면서 전 세계가 핵전쟁의 위기에 내몰렸으나, 물밑 대화 끝에 소련이 쿠바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대신 미국도 소련과 가까운 튀르키예(터키)에 비밀리에 배치해둔 핵탄두를 거두기로 결단하면서 13일만에 극적으로 사태가 막을 내린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의 대릴 킵서 사무

국장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가리켜 "세계가 쿠바 이래 최악의 핵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분석가인 드미트리 트레닌은 러시아 국영방송 RT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두 위기 상황 모두 경쟁국이 자국 문턱까지 팽창해오며 불안감을 키운 것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962년 당시 미국이 코앞 쿠바에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보며 위협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일반적으로 합병한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거센 반격을 맞아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60년 전과 지금 상황 사이 몇 가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쿠바 위기는 핵무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데다 약 2주만에 사태가 해결됐지만, 벌써 7개월째 이어진 이번 전쟁의 경우 러시아가 장악

한 우크라이나 내 영토 유지 여부가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또 쿠바에 배치됐던 미사일은 원거리에서 발사해 적국 도시를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전략핵'이었다면, 현재 러시아가 손에 쥔 카드는 보다 적은 위력을 지닌 '전술핵'이라는 것도 다른 점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러시아의 영토 합병 이후 서방 관료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77년만에 처음으로 핵무기가 쓰일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프란츠 스테판 가디 연구원은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1980년대 이후 핵무기를 이용한 가장 심각한 '벼랑 끝 전술'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 살상자를 낳지 않는 시위용 발사 ▲ 우크라이나 공격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공격 등 3가지 정도의 방법이 가능하리라 전망했다. /연합뉴스

영국 새 국왕 찰스 3세 총리 반대로 기후회의 불참

영국의 새 국왕 찰스 3세가 다음 달로 예정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불참한다고 버킹엄궁이 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앞서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는 찰스 3세가 11월 6~18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리즈 트러스 총리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관례상 왕실 구성원의 해외 공식 일정이 정부 조연에 따라 조율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버킹엄궁 접견 때 찰스 3세 국왕의 참석에 반대했다. 다만, 트러스 총리와 찰스 3세의 만남은 화기에 애했고, 인쟁은 없었다고 정부소식통이 전했다. 찰스 3세는 COP27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해도 다른 방법을 통해 총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실과 정부 측은 이번 결정이 상호 합의 하에 우호적으로 이뤄졌으며 선데이타임스의 보도에 선을 그었다. 사이먼 클라크 주택부 장관은 스카이프뉴스 방송 등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왕실과 정부가 우호적으로 합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버킹엄궁 관계자도 BBC에 "상호 우정과 존중에 기반해 국왕이 참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부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오염 대처 등 환경 분야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다. /연합뉴스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 강타 미국 남동부 최소 71명 사망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의 여파로 2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최소 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열대성 폭풍으로 강도가 약해진 이언은 현재 캐롤라이나 일대를 거쳐 계속 북상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 일대까지 비를 뿌리고 있다. CNN은 이언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플로리다주에서만 모두 67명이 사망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플로리다에서 47명이 사망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명, 쿠바에서 3명 등 최소한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로이터 역시 최소 50명 이상이 허리케인과 관련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플로리다에서만 85만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이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3만 가구에 여전히 전기가 끊겼다. 이언은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이날 오전 기준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서부 메릴랜드 일부에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NHC)는 예보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은 플로리다주는 가옥과 다리 등이 상당수 파괴되며 완전한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디엔 크리스웰 재난관리청(FEMA) 청장은 CNN에 출연해 "이언으로 인한 플로리다주의 피해가 복구되기까지는 머나먼 여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3일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허리케인 '피오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5일에는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플로리다를 찾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관중 난입'으로 참가가 빚어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의 축구장에서 일부 관중들이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축구장 관중 난동 압사 사고 125명 사망

최루탄 진압에 관중들 뒤엉켜 사망자 수 더 늘어날 수도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관중들의 난입으로 최소 125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최루탄 진압에 도망치던 관중들이 출구에서 뒤엉켜 깔리면서 발생한 이 사고의 부상자도 100명이 넘고 중상자들이 포함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일(현지시간) 일간 폼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

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전날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사망자 수가 125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상자들은 현지 8개 병원에서 집중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는 전날 열린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 축구팀 경기 후 벌어졌다. 아레마 FC가 홈 경기에서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에 23년 만에 패하자 화가 난 홈팀 관중 일부가 선수와 팀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경기장 내로 뛰어 들었다. 경찰은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

탄을 썼고, 수천 명의 관중이 최루탄을 피하려 출구 쪽으로 달려가다 뒤엉키면서 대규모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니코 아핀타 동부 자바주 경찰 서장은 "아레마 FC의 서포터스 중 일부가 선수와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최루탄을 쏘게 됐다"라며 "사람들이 이를 피하려고 10번과 12번 출구로 대피하다 뒤엉켰고 사람들이 깔리면서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3만8000명이지만, 이 경기의 입장권은 4만2000장 팔렸으며 초과 입장 규모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뼈, 룸, 홀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td> </tr> <tr> <td>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평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평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평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평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평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								